

###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돌연 사의표명 ... 배경 놓고 의견 분분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이 5월 20일 사의를 표명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5월 전국신도회와의 통합으로 새롭게 선출된 백 회장의 임기는 아직 2년 남게 남아있다. 백 회장의 돌연한 사의표명을 놓고 교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신도회관 등과 관련된 총무원과의 갈등이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중앙신도회에 물러라"며 명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중앙신도회는 백창기 회장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6월 2일 집행위원회 후 공식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의표명이 받아들여질

법기구) 중앙신도회(신도대표기구)가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불교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 구조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신도 대표기구로서의 대의성을 가

받아왔다. 중앙신도회가 명실상부한 신도 대표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재정지립도를 높이는 등의 요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우선 종단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법인화를 통한 독립성 확보와 종단에 휘둘리지 않고 신도회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인사물 회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뜻있는

부족에서도 온다. 중앙신도회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비해 수행하는 사람은 10여명 남짓이라는 것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중앙신도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재정 지립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신도회와 포교원 총무원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낸다. 중앙신도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위상 약화는 필연적이라는 것. 재정 지립을 위해 중앙신도회는 산하에 보유하고 있는 사단법인을 활용해 다각적인 수익사업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중앙신도회는 포교원에서 관리하는 신도등록사업을 넘겨받아 신도교무금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총무원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북 불자 금강산서 만난다

#### 조계종 중앙신도회, 광복절 이전 통일기원법회 추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불교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법회가 열린다.

중앙신도회는 늦어도 올해 8월 15일 이전 금강산 등 북한 지역에서 '남북불교도 조국통일기원법회'가 열린다고 5월 27일 밝혔다. 이번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200여명, 조불련신도회 50여명 등이 참가하며 육로로 금강산으로 가 법회, 체육행사 문화공연 등을 갖고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3월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조선불교연맹중앙위원회의 만남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5월 19일 조불련 정서정 서기장이 보내온 전문에 따르면 중앙신도회와 금강산에서 합동법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성시'에서 가질 것을 제안했다. 6월 중순 이후 개성시에서 열릴 실무자급 회의에서는 7월 21일경 금강산에서 파라미타 청소년캠프 사생대회를 마친 다음, 어린이 학용품 조불련에 기증해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를 입은 쌍룡중·소학교에 전달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생활필수품 불교용품 해충 방제품 등을 조불련에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갖는다. 김지연 기자

## “위상·정체성 확립하자” 의견 솔솔

백 회장의 돌연한 사의표명에 대해 중앙신도회 측은 “통합 중앙신도회 출범 이후 신도회에 대한 주변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통합신도회가 운영할 사업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진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며 “후배들을 위한 용퇴이지 신도회관 관련 총무원과의 마찰이 원인이라는 소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백창기 회장은 5월 2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유 없

경우 9월까지 수석대행체제로 운영된 뒤 9월 24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창기 회장의 사퇴가 이런저런 추측을 낳으면서, 이번 기회에 중앙신도회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삼보호지와 종단외회를 위한 단체라고 종법에 규정돼 있는 종단기구이다. 중앙신도회는 총무원(행정기구)·종회(입

제) 합에도 하나의 종단 소속 기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은 “중앙신도회가 종현에 근거한 신도대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세부 교정과 매뉴얼이 없다보니 그 위상이 상당히 격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중앙신도회는 그동안 종권과 연계되는 경향이 짙었고, 그러다 보니 신도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불교계 인사들은 말한다.

중앙신도회가 신도 대표 기구로 실질적인 조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다. 중앙신도회 스스로도 하향지향적이지 못하고 상향지향적 조직으로 자리잡아 하부구조가 부실함을 인정하고 있다. 개개 신도들과 권리의무관계를 구성해야 하는데 회비 징수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장악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력

특사업을 넘겨받아 신도교무금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총무원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신도회가 제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사찰 신도회와 신도단체 등의 하부구조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포교원과 사찰 중심의 신도교육체계를 분사와 각급 신도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포교원은 말한다. 김지연·유철주 기자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 정부, 전사법개정안 국회 제출

전통사찰보호 강화를 위해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되며, 시·도지사 소속하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5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 도입이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

존구역이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보호규정으로서, 전통사찰의 보호범위가 명확해져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보호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구역에서 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박익순 기자

### 법장 스님 6월 14일 평양 방문

#### 6·15기념 행사 참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6·15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6월 14~17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공동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다.

법장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자월 스님,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진각종 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명진 스님 등으로 구성된 불교계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하게 된다.

남북공동행사에는 남북에서 정치권 인사와 민간단체 관계자 등 모두

61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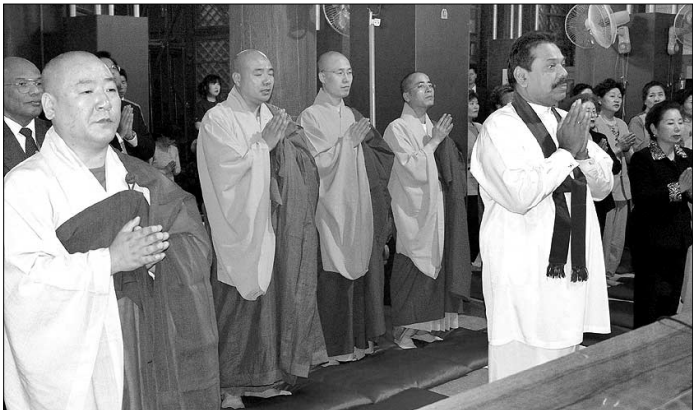
유철주 기자

#### 진각신문대상 선정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은)은 5월 19일 7명의 제7회 진각신문대상자를 선정했다.

불교일반에는 임기영 원혜영 공만식 안주호씨가, 밀교일반에 남궁현 김현남씨, 진각종 교화에 허재관씨가 선정됐다. 연구소모임에는 이종수 민윤영 이방배 박선천씨등 4명이 선정됐다.

김원우 기자



스리랑카 라자파사 수상(사진 오른쪽)이 5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있다.

### “복지타운 건립 적극 협력 할터”

#### 스리랑카 수상 조계종 방문

스리랑카 라자파사 수상이 5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복지타운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라자파사 수상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과 교육원장 청화 스님 등을 만나 “본국에 돌아가면 복지타운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법등 스님은 “형제국가

의 수상께서 이곳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연속된 재난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법등 스님은 이어 “조계종 마을 건립에 이어 현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스리랑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라자파사 수상은 조계사를 방문해 대웅전을 참배했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100여명의 사부대중의 환영을 받은 라

자파사 수상은 “1914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교류가 앞으로 더욱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원담 스님도 환영사를 통해 “귀한 손님이 조계사를 찾아 주셨다”며 “조계사도 적극적으로 스리랑카를 지원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 복지아젠다 개발 세미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불교사회복지 아젠다(의제) 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6월 16일과 23일 세검정 하림각에서 개최된다.

학술세미나는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자 스님의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불교사회복지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필두로, ‘지방분권화에 따른 불교사회복지(중앙승가대 김용철 교수)’, ‘한국사회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교복지(성균관대 이영호 겸임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02)723-5101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0-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물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앗! 인터넷에 있던 절이...”**

**법등 스님, 21세기형 포교당 ‘열린선원’ 개원**

문화포교와 저자거리 포교의 활성화를 꾀하는 도심 포교원이 개원된다.

태고종 사회부장 법등(法顯) 스님이 6월 5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열린선원을 개원한다.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를 모토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다음 사이트의 카페 ‘열린절’을 모체로 개원하는 열린선원은 각계의 전문가 그룹을 연구원으로 초빙, ‘21세기 선교방편(善巧方便)연구소’를 개설, 불교포교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현대포교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하여 일반사찰에서 불행하는 율령위주의 재일법회를 하지 않고 주5일제에 맞춰 토·일요일을 법회 및 기도일로 활용한다. 교양대학과정의 ‘열린불교아카데미’도 개설하여 불가지초과정을 지도하고 일정한 수준의 테스트를 거쳐 삼귀오계를 수지한 사람만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짜임새 있는 신행지도도 별첨한다.

누구나 편안하게 불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어린이회, 학생회, 대학생회, 청년회, 신도회 등 각급 법회도 개설한다. (02)386-4755 김원우 기자

한국불교 최고 고승 대덕큰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를 기원한다.

**공 광복 60 전 국민 평화 불교도 대회 고**

2005년 6월 14일 (화) 오후 1시 - 1부 법회 2부 축원  
 대전 / 한밭종합운동장 / 총무체육관

■ 주 최 : 봉행위원회 ■ 주 관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社團法人 韓國佛教團體總聯合會  
 ■ 참가문의 : TEL 02)868-0108, 02)3487-7751 / FAX : 02-3281-0108

참가단체는 대표자에게 봉행위원회 증명, 자문위원, 봉행위원, 홍보대사, 평화대사 각분과위원장으로 추대한다.  
 대회장에 종단 단체 명칭 현수막을 설치하며(현수막제작설치비10만) 참가자에게는 평화의 상징 기념품을 증정  
 본 대회에 참가하는 종단은 본회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종교활동에 뒷받침이 되는 공익법인 증서를 받도록 행정을 지원함.

■ 후 원 : 연합불교방송국 WWW.CBC108.TV, 대전불교사암연합회  
 ■ 회장 011-352-7751, 사무총장 011-356-3427, 집행본부장 010-3033-0124

우 152-05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4동 732-2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